

충남도 2006년도 國費 3조 2,549억원 사상최대 확보

충남도의 내년도 국비확보규모는 3조 2,54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하였다. 이는 지난해 확보액 3조 342억원 대비 7.3%(2,207억원)가 증가한 규모로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.

특히, 금년도는 국가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(Top-down)으로 각 부처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강화되고 세수 증가가 둔화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올리는 보령~안면연육교의 기본설계 완료에 따라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고, 충청남도가 부담하여 할 지방도 628호선인 삼성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1,363억원을 국비('06년도 97억원 확보)로 지원 받게 됐다.

또, 서해안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령~청양간 국도확포장 30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으며, 교통정체가 심한 청양~우성간 국도확포장 40억원, 홍성~청양간 국도확포장 20억원, 대산~석문간 국도확포장 20억원의 신규사업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각고의 노력끝에 확보한 장항국가산업단지 호안도로 사업비 400억원에 대한 국회에 결위에서의 감액방지 등 실로 우리도민이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업이 일시에 해소되고 내실있는 현안사업비를 대폭 증액 반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하였다.

그 외에 국가기간사업으로 ◎대전~당진간 고속도로건설 1,220억원 ◎공주~서천간 고속도로건설 640억원 ◎장항선 개량 2,200억원 ◎천안~온양온천간 전철화사업 1,000억원 ◎대산항 건설 273억원 ◎남당항 건설 35억원 ◎장항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127억원 ◎천안 4산업단지 진입도로 183억원 ◎인주공단 진입도로 62억원 ◎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 102억원 ◎홍보지구 농업개발 220억원 ◎백제문화권 개발(재현단지,큰길) 149억원 ◎내포문화권개발 87억원 ◎중부권 광역상수도 639억원 ◎금강 북부권 급

수체계구축 252억원 ◎삽교천수계치수사업 338억원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대규모 SOC사업들이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비롯, ◎당진항 공용부두 건설 85억원, ◎천안~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30억원 ◎천안~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◎지역농업클러스터 조성(2개 지구) 14억원 ◎온양온천~신창간 복선 전철화사업 10억원등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반영되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2006년 정부예산 주요내역

■ 총괄

구분	2006년도	2005년도	증감	증가율(%)
계	32,519	30,312	2,207	7.3
국가시행	17,104	16,481	623	3.8
지자체시행	15,415	13,831	1,584	11.4

■ 국가시행사업 - 59건, 1조 7,104억원

도로분야 20건 7,734억원

· 당진~대전고속도로	1,220	· 공주~서천 고속도로	640
· 논산~전주고속도로	430	· 천안~당진 고속도로	30
· 천안~오창고속도로	10	· 중부권 내륙화물기지(145천평)	102
· 아산탕정T/C진입도로	97	· 천안4산알단지 진입도로	183
· 장항산단 진입도로	127	· 장항산단 호안도로	400
· 인주공단 진입도로	62	· 천안~논산 고속도로유지등	600
· 청양~우성 국도 확포장	40	· 청양~홍성 국도 확포장	20
· 부여~논산 국도 확포장	72	· 일반국도 건설(566km)	3,067
· 보령~청양 국도 확포장	30	· 일반국도 유지관리	543
· 대산~석문 국도 확포장	20	· 전의단지 진입도로	41

철도분야 8건 4,755억원

· 장항선 개량(72km)	2,200	· 천안~온양 전철화(16km)	1,000
· 천안~수원간 2복선화(55km)	236	· 조치원~대구 전철화(15.8km)	790
· 호남고속철도(258km)	100	· 온양온천~신창전 철화(5km)	10
· 철도시설 유지관리	411	· 두계철도건설목입체화	8

항만시설 10건 1,277억원

· 대산항(8선석)	273	· 당진항 공용부두(2선석)	85
· 당진~평택항(임박10km)	752	· 비안항(방파제)	23
· 오천항(물량장)	17	· 홍원항(물량장)	15
· 외연도항(물량장)	17	· 삼길포항(방파제)	35
· 남당항(물량장)	35	· 안흥항(방파제)	25

상수도·하천정비 8건 1,595억원

· 남부권 광역상수도(32천톤)	10	· 중부권 광역상수도(163천톤)	639
·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구축(1,370천톤)	252	· 삼고천 수계치수(140km)	338
· 금강하천정비(120km)	25	· 삼고천 하천정비(126km)	150
· 금강수 계치수(397km)	158	· 금산천정비(4km)	23

농업기반시설 9건 1,257억원

· 홍보지구농업개발(3,300ha)	220	· 서남해안간척지 개발(3지구)	138
· 수시리설 개보수(61지구)	460	· 중규모용수개발(7지구)	320
· 농산물규격 출하(57천배)	48	· 경영이양직접지불	35
· 농업용수 자동화(2지구)	12	· 바다목장화 등	24

행정중심복합도시 1건 453억원

산업자 원개발..... 3건 33억원

· 자카드 직물지원센터(1개소)	10	· 자동차부품향상기반구축(1식)	12
· 디젤엔진가스터감시설(1식)	11		

■ 지자체 시행사업 - 289건, 1조 5,445억원

균형계정 96건 5,019억원

· 국가지원지방도(7지구)	403	· 백제권개발(3건)	157
· 내포문화권개발(5건)	87	· 배수개선(4,988ha)	312
·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(15개소)	199	· 지방산단 산업용수지원(2개소)	172
· 주거환경개선사업	131	·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(2.5km)	50
· 관광지가발(7개소)	60	· 청소년시설지원(6개소)	34
· 농공단지 조성(874천평)	47	· 지방어항시설등개발계정	798
· 대구회경지정리(770ha)	256	· 재래시장활성화(19개소)	129
· 가발축진지구등 균형계정(9건)	713	· 수해상습지가선등국가계정(8건)	509
·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건립	184	· 지역농업 클러스터조성(2개소)	14
· 동물자문사업화지원센터 건립(1개소)	22	· 영상미디어산업센터 건립등	748

국고보조 등 193건 1조 426억원

· 의료급여(87천명)	1,452	· 하수종말처리장(56개소)	615
· 하수관거정비(23개소)	407	· 생계·주거급여(85천명)	1,380
· 쌀소득보전직불제	1,203	· 지방양묘권교부세등사업	1,511
· 보육시설(34천명)	455	· 1·9구조구급대 시설장비확충	20
·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	65	· 산단폐수시설(3개소)	233
· 장모행정개선(3개소)	214	· 하수처리재이용사업	122
· 위험도로개선(42개소)	100	· 자활근로사업	144
· 일산물 유통지원사업	59	· 어린이보호구역개선(97개소)	56
· 자연환경정화사업	43	· 문화재보수정비사업등(78건)	2,397

충남도, 수출 400억불 시대로 간다

- 중소기업수출 100억불로 대기업과 동반 성장 -

충청남도는 지난해 開道 이래 처음으로 수출 300억불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, 올해에도 수출 400억불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수출진흥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.

道가 지원하는 주요 수출진흥 사업 내역을 보면 ▲ 해외시장 마케팅 분야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, 박람회 참가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,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, 수출기업구조 고도화 사업, 수출유망상품 홍보,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13개 사업에 30억원을 700여개 기업에게 지원하고 4,000억원을 투입,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,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지원 등 수출 400억불 시대를 열기 위해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또한 ▲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운영중에 있는 3개 해외 사무소의 통상 활동을 강화하여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연결 및 상품전시 홍보와 유명 전시·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,

▲ 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통해서도 전자무역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수출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게 통·번역, 신용장 개설 등 무역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충남도 관계자는 2015년의 국가 교역 규모가 1조불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의 수출규모도 2010년 700억불, 2015년 1,00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, FTA, DDA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道와 수출 유관기관,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충남도는 지난해 수출 335억불(잠정)에 흑자액이 141억불로 국가무역수지 흑자액 223억불의 63%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면에서는 세계 230여개 국가와 비교할 때 43위 수준이며, 전국 시·도중 4위로 20년 전 국가 수출액과 대등한 규모다.

충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 그동안 중·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, 반도체, 자동차, 영상기기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온 것은 물론 「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」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「해외시장 마케팅 등」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.

“2006 전국문화관광축제”로 충남 5개 선정

- 전국 27개 축제중 “보령 머드축제”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-

충청남도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보령 머드, 금산 인삼축제, 논산 강경젓갈 축제, 아산 성웅이순신축제, 서천 한산도시문화제 등 5개 축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, 이중 보령머드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.

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5개의 축제는 “문화관광부 지정” 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, 1개 축제당 최고 3억원에서 5천만원까지 국비 지원과 문화관광부, 한국관광공사, 아리랑·리빙TV 등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되는 혜택을 받는다.

한편, 2006 문화관광축제는 전국 대표·유망축제로 27개 축제가 선정되었으며, 우리지역 천안 흥타령 축제는 예비축제로 신규 지정되어 문화관광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06년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경우 국비도 지원받게 된다.

충남도 관계자는 “충남의 문화관광축제가 세계적인 유명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이 방문지역에서 체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농가 민박이나 농어촌 휴양시설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,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”고 말했다.